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90周年標語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자
立って イエス キリストの光を放とう
(이사야 60:1, 마태 5:6)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5月1日(土)〈1999年〉第569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03(3202)5398番
発行人 慶恵重・編集人 姜栄一
毎月1回1日発行 購読料1部100円
昭和38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Tel.047-424-7461 Fax.047-424-7496

第45回定期総会 日程等이 決定

第4回任職員会서 決議、東京学生센터 設置等도

第四四回総会期 第四回総会任職員会가 지난 四月六日 大阪教会에서 갖고 다음과 같은 決議를 보았다。

一、決議事項

(1) 平壤訪問件
期 間:一九九九年七月一九日~二九日
参加者:十名
費 用:約二五万円

(2) 金聖基牧師 治理件
中部地方会가 上程한 金聖基牧師 治理件은 治理委員会를 組織하여 一任하다。
治理委員:慶恵重(長)、金榮植、金德化、李大京、李炳球 諸牧師

(3) 東京센터推進委員会組織
金君植(長)、慶恵重、梁霊芝、金太烋、姜順子

(4) 東京学生센터 購入件
学生센터를 設立하여 地方에서 東京으로 오는 学生을 비롯 韓国에서 留学오는 学生들을 為한 学生센터를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 東京에 나온 建物을 사기로하다。
推進委員으로 金君植(長)、金太烋、鄭鍾実、白昌鎬

(5) 上町教会 改築募金
이를 許諾하되 改築은 担保를 갖고 있는 銀行과의 関係가 있으니 地方会가 이를 指導하도록 하다。

(6) 総会規則・地方会規則을 定期総会에 上程하기로 하다。

(7) 第45回定期総会
日程:十月十九日(火)~二一日(木)
場所:神戸東部教会

神学生研修会 名古屋서 開催

金東勲教授 講師로 在日同胞問題等 배워

지난 三月三十一日~四月一日에, 名古屋教会에서 本総会 所属의 神学生 十名이 모인 中, 神学委員会 主催로 研修会가 開催되었다。今番 研修会는 開会礼拝(説教:辛鐘國牧師、聖書:마十四:三一~四二、題目:그리스도의 四大苦難로 시작하여, "在日同胞의 現在 및 今後의 法的課題"를 主題로 金東勲先生 龍谷大学教授)이 두번의 講演과 質疑 応答이 있었다。特히 論証된 問題点은 在日同胞의 歴史認識의 変換、帰国志向에서 定住志向、民族選択에 関한 것、内的国際化、社会構成員으로서 共同体 意識、日本의 外国人 管理政策、国際人権規約 第二七条 및 마이노리티 権利宣言、文化的 自決権、基本的 自由、어린이 権利条約、社会法에서의 保障制度、国民 共同体에서 住民 共同体意識、地方自治法 第十条、十三条 등에서 規定되어 制定된 住民基本台帳法에 関한 것、特히 마이노리티의 権利保障은 永住(定住)者에게 限定될 것이 아니라 一時的在留・滞在者에게도 適用되어야 한다는 것 등、広範囲하고 多様性 있게 論証되어 現在 우리 同胞들의 立場에서 아주 뜻있는 講義였다。

기타 分担講義로는 우리 総会教会를 土台로 하여 礼拝論(辛鐘國牧師)、解放前의 歴史(朴憲郁牧師)、礼拝에 있어서의 二重言語의 問題(金性済牧師)、나의 牧会論(崔正剛牧師)、憲法改正案(鄭然元牧師) 등으로 進行되었다。

水曜祈祷会는 名古屋教会信徒들과 함께 恩恵롭게 드렸으며、説教는 鄭然元牧師가 로마書一:十四~十七의 本文으로 "福音에 빚진 사람" 의 題目으로 하였다。새벽 祈祷会는 朴恩塾神学生이 担当했고 閉会礼拝는 黄義生牧師의 마태福音二十:一~十의 本文으로 "우리에게 向한 하나님의 無限奥妙하신 사랑의 処遇" 의 내용으로 説教가 있은後 意義있는 研修会를 마쳤다。

(報告 辛鐘國牧師)

総会神学校 入学式을 挙行

五名의 新入生 맞아 점차 成長을 보여

東京総会神学校는 지난 四月一二日(月)、一九九八学年度後期 第四回入学式과 開講式을 많은 来賓과 在学生、新入生이 参席한 가운데 挙行되었다。

金性済教授의 司会로 시작된 礼拝에는 趙重來牧師(쯔쿠바東京教会)의 기도와 副総会長 金德化牧師의 "부름받은 일꾼" 이란 題目의 恩恵로운 説教가 있었다。이어서 関東地方会長 鄭然元牧師의 勧勉、校長代行 金君植牧師의 新入生紹介 및 来賓紹介 등이 있은 後、総会長 慶恵重牧師의 祝祷로 礼拝를 드렸다。

特히 今番 入学式에는 五名의 新入生을 맞이하게 되어 점차 成長해 가는 神学校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二部 順序에는 教務主任 権寧國牧師의 司会로 学校에서 準備한 食事를 나누면서 新入生들의 自己紹介와 所感 등을 말하고 参席한 来賓들의 激励을 들으면서 祝賀会를 가졌다。

또한 今番 入学生부터는 寄宿舎가 提供되고 図書館이 準備되어 많은 便宜와 勉学의 雰囲気가 造成되는 것을 披露하고 継続해서 総会傘下의 모든 教会의 뜨거운 関心과 協力을 要請하였다。

新入生一年生:金大鉀、林美杏、朴善珠。三年生:張元世、安在奭

(報告 権寧國牧師)

学生센터 購入키로

寄宿舎、教会、総務住宅등 兼해

第四回総会任職員会議는 東京에 学生센터를 購入하여 学生求道를 推進하기로 決議했다。

総会는 人材養成을 宣教八〇周年에서 採択한 宣教理念에서도 強調하고 있으나 具体的인 法案을 模索하던 中 금번 適切한 物件이 있어 이를 購入하기로 決議를 하였다。

学生센터가 마련되면 地方에서 東京으로 就学하는 学生들 뿐만 아니라 韓国에서 留学오는 学生들도 큰 도움이 될뿐 아니라 学生求道의 센타로서도 重要한 拠点이 될 것이다。

現在 推進中인 建物의 内容은 다음과 같다。

住所:東京都北区
土地面積:543.86㎡(165.21坪)
建物面積:342.07㎡(103.47坪)
延床面積:1145.00㎡(346.36坪)
建物構造:
鉄筋콘크리트4層
建物用途:共同住宅・事務所・作業所
建築:1985年1月
購入価格:2億8600万
資金:銀行融資1億5千万
自己資金1億3600万
収支資金予想:
収入予想2千240万
①아파트(19室)賃貸料 1千760万円
②事務所賃貸料 180万円
③作業所賃貸料 480万円
支出
銀行返済(十年返済)
元金1千500万円(年)
利息 年2.5%
使用目的:
①学生寄宿舎
②教会
③総務住宅

第四次共和国訪問団募集

平和統一宣教委서 決議

平和統一宣教委員会(李大京)은 委員会를 四月五日(月) 開催하여 第四次共和国訪問団을 派遣하는 等을 決議했다。

委員会는 一九九八年度에 가졌던 平和統一大阪会議를 総括하고 今年度 計画을 推進하기로 했다。第六次会議는 参加者一四〇余名(二五教派・団体)으로 좋은 会議를 가진데 対한 評価가 높았으며 앞으로도 持続的인 会議를 갖기로 했다。

今年度에 実施할 共和国訪問団 件은 다음과 같이 決議를 했다。

時 日:七月十九日(月)~二九日(木)
(日程:十九日—北京到着、査証申請。二〇日平壤到着。二五日—북수 教会礼拝出席。二七日—平壤出発。二七・二八日—北京観光。二九日—北京出発。各地域으로)
参加者:十名
費 用:二五万円
参加者는 総会로 連絡주시기를 바랍니다。

1999年度教役者研修会開催

▼主題:世界를 섬기는 디아스포라 教会로서의 KCCJ
(世界に仕えるディアスポラ教会としてのKCCJ)

▼主題講師:郭 善 熙 牧師(예長 統合 所望教会)

▼発題:
1(発題者=盧政一牧師、コメンテーター=朴米雄牧師)
2(発題者=崔春子牧師、コメンテーター=金 健牧師)
3(発題者=李根秀牧師、コメンテーター=朴寿吉牧師)

▼日程:1999年7月6日(火)~8日(木) 2泊3日

▼場所:宿泊=西帰浦KAL Hotel
(韓国・済州道)
集会=西帰浦教会

▼参加:①牧師、講道師、伝道師
②師母
③長老有志

▼費用:五万九千円(航空料込み)
<同伴師母・子供:1人4万円>
※未自立・開拓教会 1万円補助

▼主催:教育局・伝道局共催

関東地方会 復活節聖歌大会開催

関東地方서 5年만에 開催、日立伝道所가 最優秀賞

関東地方会에서는 지난 四月四日 復活節을 맞이하여 地方会 傘下 十八教会에서 約 三百五十名의 信徒들이 参加한 가운데 聖歌大会를 開催하여 復活하신 主님을 讃揚하며 各教会에서 모인 信徒들이 한자리에서 交際를 나누었다。

東京教会를 場所로 하여 開催된 聖歌大会는 関東女性会会長 姜順子執事의 司会로 第一部 礼拝가 사작되어 金東洙牧師의 祈祷와 東京教会 聖歌隊의 讃揚과 地方会長 鄭然元牧師의 復活節 메시지가 있은 後 곧 이어 二部 聖歌大会가 準備委員인 金柄鎬牧師와 金貞姫執事의 司会로 慶恵重総会長、姜栄一総務、金元洙長老(東京中央教会)、池恵鮮勧士(東京第一教会)、朴大信会長(青年連合会)을 審査委員으로 하여 이어졌다。

地方会 傘下 各教会에서는 担任 教役者가 먼저 教会 및 聖歌隊를 紹介한 다음 聖歌 一曲씩 準備하여 불렀으며 聖歌를 부르는 사람이나 聖歌를 듣는 사람 모두가 感謝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栄光을 돌리는 恩恵로운 時間이었으며、各教会의 讃揚이 끝난 後에는 地方会 所属 教役者와 師母의 讃揚도 있었다。

審査委員들의 審査結果에 의해 施賞式이 挙行되었는데 最優秀賞은 日立伝道所(鄭仁和牧師)가 受賞하였다。日立伝道所는 創立된지 四年된 教会로서 参加教会中에 가장 먼 距離에서 十五名의 聖歌隊員이 参加하여 楽器演奏와 함께 恩恵로운 讃揚을 하였다。

閉会에는 参加者 全員이 金元洙長老의 指揮로 "할렐루야" 合唱을 感激과 恩恵스럽게 부른 後 東京教会 金君植牧師의 祝祷로 마쳤다。

関東地方会에서는 女性連合会의 主催로 一九八七年부터 毎年 復活節에 "連合聖歌의 밤"을 開催해 왔으나、一九九四年 八回를 마지막으로 여러가지·事情으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今番에 地方会가 主催하고 女性連合会와 青年連合会가 協力을 하여 再開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 毎年 復活節聖歌大会를 開催하자는 意見의 소리가 높았다。

(報告　金柄鎬牧師)

世界教会協議会総務가 来日

総会와도 懇談、宣教課題等 協議

世界教会協議会 콘라드 総務가 総会를 訪問 総会長과 総務와 懇談을 가졌다。

콘라드総務는 日本을 訪問하여 世界教会協議会会員教会를 訪問、世界教会가 当面하고 있는 宣教課題들을 協議했다。

世界教会協議会는 지난 十二月 아프리카 짐바브에서 総会를 가진 後 첫 会員教会를 訪問、日本教会와의 協議、教界指導者들과의 懇談会를 갖는 等 바쁜 日程을 보냈다。

이와같은 바쁜 日程 가운데 総会를 訪問하여 慶恵重総会長과 姜栄一総務가 総会의 宣教課題에 関해 説明을 했다。한 時間 予定이 時間을 넘도록 意見을 交換했다。

이와같이 長時間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一九九八年에 総会長과 総務가 世界教会協議会를 訪問하여 그 동안의 協力과 支援을 感謝하고 앞으로의 에큐메니칼 運動에 総会는 積極的으로 参与하겠다는 意思表示에 콘라드総務는 이를 感謝하고 이번 訪問에서도 이에 関한 話題가 中心이 되었다。

李根秀牧師 横浜教会委任

去る三月二八日、横浜教会において李根秀牧師の委任式が執り行われた。横浜教会臨時堂会長である鄭相熙牧師による司会のもと、待ちに待った牧師の就任を祝う信徒の喜びに満ちた思いの中で厳かに執り行われた。洪性完牧師の祈祷と横浜教会聖歌隊による讃揚の後、ルカによる福音書五章一~十一節の御言葉をもちいて金君植牧師が「御言葉により頼む」という主題で説教をし、参席者一同に深い感銘を与えた。説教後、関東地方会会長である鄭然元牧師の司会の下、宣誓と宣布がなされた。楊栄福執事の美しい歌声による祝歌の後、総会長である慶恵重牧師の勧勉があった。慶恵重牧師はユーモアたっぷりな中にも「人に相談するよりも、先ず神に相談する牧師であれ」と新任牧師に勧めをした。その後、総務の姜栄一牧師と地方会副会長の鄭鍾実長老が祝辞を述べた。姜栄一牧師は祝辞の中で横浜教会が今まで多くの人材を輩出してきたことに注目し、「横浜教会は人材を育てる教会である」と評価しつつ、新任牧師の在豪期間(二年間)にわたり物心両面の支援の労をねぎらった。

委任式の後、会場を打越保育園に移して、楽しいパーティが持たれた。横浜教会女性会が腕によりをかけて準備した料理の数々を参加者一同は賞賛の言葉と共に舌鼓を打った。パーティの席上、李仁夏牧師は「新任の牧師は実に根アカであり、教会が明るくなった」と挨拶を述べた。その言葉通りに終始明るく楽しい交わりの一時であった。

李根秀牧師は関西学院大学神学部卒業後、大阪西成教会の講道師を経て、一九八三年西南地方会で牧師按手を受け、一九九六年まで折尾教会を牧会した。辞任後、二年間オーストラリアのユナイティングチャーチで牧会研修をした後、今年一月に横浜教会に着任された。四五歳。家族は崔好子師母との間に三男一女(信剛・信岩・信三・柔和)である。(報告　金広照長老)

説教

《어머니主日》

約束있는 첫 誡命

—— 에베소서 6:1~3 ——

孫　承　鎬　牧師(大阪南教会)

五月은 "家庭의 달"이라 하고 五月 둘째 主日은 어버이主日로서 지켜온 것은 韓国教会의 오랜 伝統이 되었다。누가 먼저 시작했던간에 어머니날이 있는 것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最近 韓国에서 어머니날을 "어버이날" 이라 하여 "어머니날" 本来의 趣旨를 退色시킨 감이 없지 않아서 本人의 個人的인 생각으로도 좀 못마땅한 점이 없지 않다。父母님의 恩恵는 다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 子息을 自己 몸에 直接 孕胎하여 열달동안 품고 있다가 목숨을 건 解産의 受苦를 通해서 子女를 生産하여 기르신 어머니의 犠牲과 苦生은 아버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女性의 特性上으로 볼 때에도 어머니의 子息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들의 追従을 불허한다。本人도 이제 아버지의 한 사람이 됐지만 아내의 子息에 대한 関心에는 따라 엄두도 내지 못한다。

本人의 어릴때의 일이다。고기국을 먹기 어려울 때에 고기국을 끓였는데 어머니는 自身의 국에 든 고기를 건져서 내 국그릇에 넣으시면서 너도 나중에 이와같이 해라、하시던 그 말씀은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오래된 지금까지 내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다。

「樹欲養而風不止하고 子欲養而親不待니라」하는 옛말이 있다。나무가 가만히 있자고 하여도 바람이 가만히 두지 않고 子息이 父母를 고이 모시고자 하여도 父母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뜻이다。朱子十悔에도 第一 첫번째가 "不幸父母死後悔" 라고 했다。子息들은 흔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父母님을 잘 모시겠다고 하지만 그 말은 孝道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바라건데 父母님이 계시다면 함께 사는 동안 혹은 機会 있을 때 父母님을 잘 모시고 孝道하는 것이 子息의 恩恵를 알고 父母에게 孝道하는 것이 子息에게 孝道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孝道든 信仰이든 좋은 模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家庭의 달인 五月을 맞이하여 父母님께도 하나님께도 恩恵스러운 模範을 세우는 푸른 五月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다。

本人이 特히 孝道에 대해서 強調하는바、에배소서六:一以下의 말씀을 보면 孝道에는 하나님의 特別하신 약속이 있다。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約束되어 있기는 하지만 本文 말씀에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長寿하리라" 는 말씀이 強調되어 있다。당신은 아는가? 父母님을 恭敬하여 孝道하는 것이 땅에서 成功하고 無病長寿하는 秘訣이라고 하는 것이다。이는 하나님의 約束이니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事実이라고 믿는다면 本人은 分明히 証拠할 수 있다。孝道는 땅에서 成功하고 長寿하는 秘訣이 된다는 事実을 나는 그 理由를 説明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約束이기에 하나님께 順従하는 자에게 世上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 삶의 秘訣이 있음을 証拠하는 것이다。工夫도 못하고 技術이 없어도 孝道는 할 수 있으니 비록 能力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안에서는 成功도 하고 無病長寿하는 方法을 마련해 두신 것이다。

聖経말씀에 "내 子息을 사랑하라" 는 말씀은 거의 없다。子息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기 때문이다。그러나 "父母를 恭敬하라" 는 말씀은 많이 있다。特히 父母를 욕되게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厳格한 말씀도 있다(申命記二一:十~二一)。이는 父母를 소홀히 하는 者가 많기 때문이며、그러한 者들에 대한 하나님의 憤怒를 보여주신 것이다。父母님을 恭敬하여 섬기면 福을 받고 長寿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約束은 바꿔말하면 不孝막심한 者에게는 큰 不幸과 咀呪가 있다고 하는 말과도 같다。本人은 結婚해서 멀리 떠나는 아들 夫婦를 앉혀 놓고 3가지의 중요한 教訓을 命한 바 있다。그 첫째는 너는 반드시 主日을 聖守하고 十一条를 드리라는 것、둘째는 어려운 일이 생길때마다 네 아비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도 엎드리라는 것이며 세번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萬寿無疆을 위하여 너는 반드시 父母에게 孝道하는 子息이 되라고 厳命한 것이다。本人은 분명히 믿고 있었으므로 아들의 将来를 위하여 当付해서 보냈던 것이다。

어떤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祖上도 父母도 모른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그러나 그것은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다。世上에 예수님 같으신 孝道가 어디에 있는가。

十字架에 못박히셔서 뼈가 깨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과 쏟아지는 물과 피로 인하여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極甚한 苦痛중에서도(시二二:十四~十五、요十九:二十八~二十九)십자가 밑에 서신 어머니를 보고 사랑하는 弟子에게 어머니를 付託하시고 숨을 거두셨다(요十九:二十五~二十七)。本人은 이 惨酷한 現場에서 어머니를 弟子에게 付託하시는 主님을 볼때에 旋律을 느낀다。

어느 長老님이 훌륭히 치러진 어느 牧師님의 葬礼式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 牧師님도 훌륭하시지만 돌아가시면 이렇게 훌륭한 葬礼式은 못해드릴것 같다" 고 하길래 本人은 "살아계실때 잘 해 드리는 것이 훌륭한 葬礼式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훌륭한 葬礼式도 고마운 일이지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 길은 없다。어떤이는 훌륭한 葬礼式이나 祭祀를 보고 孝道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돌아가신 이를 위해서도 孝道가 되더란 말인가。俗談에도 "살아계실 때 한 잔 술이 죽은 후에 석 잔 보다 낫다" 고 했다。孝道는 살아 계실때만 가능한 것을 記憶해야 할 줄 안다。

世上의 父母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代父와 代母와 다르지 않다。父母노릇 기껏해야 겨우 五·六十年밖에 못하는 世上의 父母님께도 이렇듯 厳重한 명령을 세우신 하나님의 심을 볼때 永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尊重히 여겨야 할 것인가。

"養子에 知父恩이요 事親教子孝니라" 하는 말이 있다。子息을 길러보면 父母의 恩恵를 알고 父母에게 孝道하는 것이 子息에게 孝道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孝道든 信仰이든 좋은 模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家庭의 달인 五月을 맞이하여 父母님께도 하나님께도 恩恵스러운 模範을 세우는 푸른 五月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다。

新任教役者に聞く

●今年度の総会試取を受験し、新たに牧師となる四人に質問。その素顔を紹介します。
●質問は①生年月日、②出生地、③家族構成、④視務教会、⑤母教会、派遣教団、⑥今後のビジョン、⑦何か言いたいこと――

●韓聖炫●

①一九五三年一月四日
②日本、青森県
③妻(文善熙)、長男(盛敦・中一)、長女(友里・小六)、次女(しおん・小三)、次男(イザヤ・小一)
④西新井教会
⑤東京中央教会
⑥西新井教会は二〇〇二年に創立五〇周年を迎えます。それを目標にぜひ新しい礼拝堂を建築したいとの幻をもっています。
⑦私どもの教会には、この世的な「金」や「銀」はない。しかしつねに「イエス・キリスト」ご自身が満ちあふれる教会であることを誇りたい。教会に集うすべての人が、イエス・キリストの名によって「立ち上がり」「歩く」教会であることを誇りたい。

●洪領晃●

①一九五四年三月二九日
②日本、宮城県
③なし
④一宮伝道所
⑥(一)在日の若者に対しての宣教、(二)地域に根ざした宣教

●黄貞順●

①一九五九年十一月十日
②韓国、京畿道
③両親、兄弟(一男二女)
④甲府伝道所
⑤富川第一監理教会
⑥これらはすべて神から出ることであって神は、キリストを通してわたしたちを御自分と和解させ、また和解のために奉仕する任務をわたしたちにお授けになりました。つまり神はキリストによって世を御自分と和解させ、人々の罪の責任を問うことなく、和解の言葉をわたしたちにゆだねられたのです。ですから、神がわたしたちを通して勧めておられるので、私たちはキリストの使者の務めを果たしています。キリストに代わってお願いします。神と和解させていただきたい。(第二コリント五:一八~二〇)
⑦だれを恐れるべきか、教えよう。それは殺した後で、地獄に投げ込む権威を持っている方だ。そうだ。言っておくが、この方を恐れなさい。(ルカ一二:五)

●朴龍洙●

①一九六四年二月二十日
②韓国、慶北安東郡
③妻(坂直子)
④神戸東部教会
⑤大邱大成教会(合同)
⑥一九八八年に留学のため日本に来ましたが、その時、神からの召命を受けました。神の導きにより神戸改革派神学校を卒業した後、三年間、キャンパス・クルセード・フォー・クライスト(C・C・C)のスタッフとして働きました。その中で在日大韓基督教会で働くように導かれてきました。教会員の構成が多様化していく中、在日三世、四世や日本人青年などへの伝道に力を注いで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来日して、神の召命を頂きましたので、日本での宣教が神の御旨と信じ、この地で一粒の種となれるよう尽くしていきます。
⑦足らない者ではありますが、今後ともお祈りと主にあるご指導を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李聖柱牧師 三沢教会委任

関東地方会 三沢教会では李聖柱牧師の委任式が去る三月二九日(月)午後五時、総会と地方会に多数の教役者と三沢教会信徒達と地域の同胞有志達が参席の中厳粛に挙行された。

臨時堂会長 姜栄一牧師の司会で開始された礼拝は洪性完牧師(大宮教会)の祈祷と司会者の聖書奉読(マタイ十:一~八)と聖歌隊の讃揚(賛)の後、鄭相熙牧師(横須賀教会)が「弟子を作れ」という題目で説教を行なった。

引続き地方会長鄭然元牧師の司式で委任式が行なわれ、李聖柱牧師と三沢教会信徒達の誓約を受けた後、李聖柱牧師に三沢教会を委任する旨が宣言された。

次に地方会長鄭然元牧師の勧めがあった後、一九八六年六月一日三沢伝道所を開所した金致福牧師(仙台教会)の祝辞と李徴然牧師(千葉教会)の祝辞を受けて李聖柱牧師の祝祷で委任式を閉じた。

今回の委任式は、一度も教会に来たことのない地域社会の同胞有志が委任式に参加する中で、李聖柱牧師の宣教を担当する中で、教会の使命を再確認する中で、感謝を深めた。

今番三沢教会の委任を受けた李聖柱牧師は一九三二年ソウルで生まれ、一九三二年ソウルで出生し、監理教神学大学を卒業し、基督教大韓監理会で牧師按手を受けた。

(報告 洪性完牧師)

李応周牧師 東金伝道所委任

関東地方会では去る四月二三日(木)、午後三時から東金伝道所開設式と李応周牧師の委任式を地方会傘下教会の教役者、信徒約三十余名が集まって恵まれた中で挙行された。

地方会伝道部長金君植牧師の司会で開始された礼拝は青年部長権寧國牧師の祈祷と副書記洪性完牧師の聖書朗読(ヨハ五:八~二一)の本文で「立ち上がれ」という題目の説教があった。

教会長鄭然元牧師の司式で伝道所開設宣言と李応周牧師の委任誓約と祈祷、宣言があった後に総会長慶恵重牧師の勧めと祝辞は総会を代表して副会長鄭相熙牧師が行なった。

今番に開設された東金伝道所は数年前から関東地方会が祈祷会を行なっていた権明順聖徒が私財で礼拝堂を建築するなどの献身的な献金を通して実現した。

新しく開設された東金伝道所を委任された牧師は一九四〇年京都で生まれ、神大神学大学院を卒業した後、大韓予教長老会(合同)総会派遣宣教師として来日した。以後宇部教会、岡崎教会を牧会した後、家族は権永子師母と三男一女を持っている。

総務活動日誌

●会議
○牧師・講道師考試
日時:四月五日
場所:大阪KCC
○人事局会
日時:四月五日
場所:大阪教会
○任職員会
日時:四月六日
場所:大阪教会
○関東地方会任職員会
日時:四月十二日
場所:東京教会
○総会神学校入学式
日時:四月十二日
場所:東京教会
○総会神学校生との懇談会
日時:四月二二日
場所:神学校寮
○関東定期地方会
日時:四月二九日
場所:船橋教会
○関東地方会聖歌大会
日時:四月四日
場所:東京教会
●海外教会代表懇談会
○WCC総幹事
*総会訪問
日時:四月十四日
慶恵重総会長、姜総務
*歓迎会
日時:四月十四日
*講演会
日時:四月十五日
○中国教会
*歓迎会
日時:四月十八日
場所:東京YMCA
参加:姜栄一総務
*教界代表者との懇談会
日時:四月十九日
場所:AVACO
*総会主催夕食会
日時:四月二十日
場所:東京韓国YMCA
●金徳成名誉牧師告別式
日時:四月十六・十七日
場所:大阪教会
●説教
○京都南部教会
日時:四月十八日

金徳成牧師召天

大阪教会の名誉牧師で本総会の総会長を務めた金徳成牧師が去る四月十四日午後六時二十八分に育和記念病院で召天されました。享年七十八歳。

前夜式は四月十六日、午後六時三十分に大阪教会の虚政一牧師の司会と李仁夏牧師(川崎教会元老牧師)の「ハンを故郷を熱望しながら」という題目の説教で進行されました。

葬儀は四月十七日、午前十時に金安弘牧師の司会で、カナダ・バンクーバー六・十七の聖書本文で林寅植牧師(ソウル露梁津教会元老牧師)が「イエスの証人」という題目の説教を行なった。

葬儀に弔辞は副総会長金徳化牧師と多数の来賓の方々の後に遺族の挨拶に引き続き総会長慶恵重牧師の祝祷と献花の順序で進行されました。

金徳成牧師は一九二一年九月二十九日、黄海道で出生し、韓国神学大学を卒業した後、一九四四年に牧師按手を受けた。一九五〇年に宣教師として在日大韓基督教会名古屋教会に赴任した後、福岡教会を経て一九七〇年に大阪教会に赴任した。一九九一年定年退職した後、名誉牧師に推戴されました。大阪教会の発展と成長を願いつつ、総会長を三回歴任されました。本総会の発展を願いつつ、多くの苦難を乗り越えて、学力は韓神大学を卒業した後、美国ミシガン大学とカナダ・ウィンニペグ大学で修学されました。一九八六年には名誉神学博士学位を受けました。

遺族は一九四〇年に結婚した沈孝男師母と三男二女と孫子十二名がいました。

장터
韓国食品・書籍・CD・ビデオ
㈱韓国広場
新宿店:東京都新宿区大久保1-17-7
TEL (03) 3232-5400
FAX (03) 3200-2949
代表取締役 金根熙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話 052(682)1177㈹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通信販売(お米とミネラルウォーター)
エル・コム(L·Communication)
●おいしいお米"ヒノ・ヒカリ"『シオン・ファーム農場』直送
●地下玄武岩層からの恵み 天然水「CHEJU SAMDASOO」
資料請求はFAX0797(34)6815
ルツ結婚相談所
"15年のノウハウと実績"ご相談は☎0797(34)6814
芦屋市朝日ヶ丘町10-35-504 崔貞淑(神戸東部教会執事)
〒659-0012
ビル綜合管理・駐車場管理経営・メンテナンス
uic 株式会社ユーアイシー
代表取締役 玄承禎(神戸東部教会長老)
〒543-0023 大阪市天王寺区味原町13-8 ☎06-6768-0910

中国教会 代表団과 懇談

人材養成에 継続的인 協助 当付

지난 四月十五日～二二日、中国教会代表団이 日本을 訪問、関西와 東京에서 歓迎会와 懇談会를 가졌다。

二〇日에는 関東地方会가 招待를 하여 뜻있는 時間을 가졌다。

中国教会는 文化大革命時期 迫害로 어려움을 겪었다。그当時는 教会가 三個処밖에 없었으며 信仰의 自由를 누릴수가 없었으나 一九八一年부터 教会 再建를 맞이해 이제는 一万三千教会、二万家庭教会에 이르기까지 成長했으며 聖書印刷는 2千万巻을 発行하기까지 되었다고 報告했다。

앞으로의 課題는 人材養成에 있다고 強調하고 継続的인 協助를 当付했다。

中国教会 代表団 가운데는 朝鮮族 教会 代表도 参加、朝鮮族 教会의 現況도 들을수 있었다。朝鮮族 教会 代表는 瀋陽에 있는 西塔教会 牧師인 呉明峰牧師로 韓国 長神大를 卒業하고 牧師가 된 女性牧師이다。呉明峰牧師의 姑母이신 呉愛恩牧師로 文化革命時期에는 農村에서 強制労動까지 経験한 牧師이시다。

朝鮮族 教会 指導者 養成은 東北神学校에서 教育을 받고 있는데 이는 中国神学校内에 少数民族 神学校로서 세워져 指導者를 排出하고 있다。現在 五〇余名의 神学生이 在学하고 있으나 経済的 事情이 어려워하고 있어 総会는 聖誕節 献金에서 奨学金으로 後援하고 있다。今番도 呉明峰牧師便에 奨学金을 伝達했다。

関東地方会(会長 鄭然元)는 貴한 膳物을 사서 贈呈했다。

在日同胞関係日誌 99年2月

●**二月二日** 尼崎市在住の在日同胞たちが一九九〇年八月、外国人登録法に抗議して当時の海部首相に郵送・返上した登録証が所管の法務省から自治体に転送された後、何の措置も取られないまま八年以上も放置されていることが判明。

●**二月八日** 一九一九年二月八日、在東京留学生二百人が東京・神田の朝鮮基督教青年会館で独立宣言を発表してから八〇年を迎え、在日韓国YMCAで記念式典が開催される。

●**二月十三～十四日** 神奈川民闘連、高槻むくげの会など市民グループが、川崎市で「第三回民族差別と闘う実践交流会」を開催。

●**二月十九日** 在日同胞として初めて元「慰安婦」として名乗り出た宋神道さんを原告とする謝罪・補償請求裁判が、東京地裁で結審。

●**二月二四日** 大阪府に住む四三人の在日同胞が地方参政権の確認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で、大阪高裁は原告側の訴えを退ける判決。

（作成 RAIK）

住所変更

●**東金伝道所(李應周牧師)**
〒二八三―〇〇六四 東金市川場五九四―一 ☎FAX〇四七五―五五―二四七六

●**金東洙牧師**
〒一七四―〇〇〇四 東京都板橋区板橋一―三五―六―四〇二 ☎〇三―五九四四―四八七七

●**孫信一講道師**
〒三一一―一一三四 水戸市百合ケ丘八―一―五―一〇二 ☎〇二九―二四八―二四一八

●**朴時永講道師**
〒六〇一―八〇二二 京都市南区東九条北松ノ木町二八―Ⅱ―二一七 ☎〇九〇―二〇六八―九七四〇

●**禹秀磨牧師**
〒五三一―〇〇七三 大阪市北区本庄西三―五―一―七〇二 ☎〇六―六三七六―一二一七

●**東京カルバリ教会 電話番号変更** ☎〇三―三七三三―六五六八

JNACの将来に向けての省察と提案（1）

《第一章》幾つかの変化と方向性

Pat Patterson

過去十年ほどの間にJNAC（日北米宣教協力会）の活動がおかれている国際的、教会的コンテクストは幾つかの大きな転換を経験しました。

以下、それらのうちの幾つか挙げます。これらは世界的な規模で起こった広範囲での変化と、より限られた範囲で起こった、JNACの関係性、働き、また将来の計画に直接影響を及ぼす変化です。

1 複雑で、危険でさえある状況

過去十年の様々な変化は著しいものでした。世界は冷戦構造から「新世界秩序」へ、そしてさらに、アメリカ合衆国をその主なる支配的権力にすえる形で、世界規模経済の時代へと推移しました。この世界規模の経済活動はつまづきを見せています。アジア諸国の経済的な大成功は、中間層と貧困層に属する人々の多大な生活苦に直面して疑問符が付されています。安全圏にあるかに見える日本はその実、不況のただ中にあり多くの改革を迫られていますが、依然として強力な経済的影響力を、特にアジアの国々に対して及ぼしています。

軍事的な側面では、幾つかの問題は変わらずに存在しています。軍事費拡大の速度は危険な状態です。合衆国は依然として日本を軍事行動に参加させるべく圧力を加えています。自衛隊を海外派遣するPKO法案や軍事ガイドラインへの合意も、こうした圧力の内に含まれるでしょう。合衆国はその利益と投資への安全確保のために強力な軍事力を維持しようとするでしょう。イラクに対する行動はその好例です。

また、第二次世界大戦後も未解決の幾つもの課題が日本を悩ませています。アジアの隣人からの不信感、元慰安婦への補償問題、そして旧植民地出身の元軍人への恩給支給問題などがそれです。

こうした中、世界規模の経済活動は各国の経済を危険な方向で統合しつつあります。このプロセスは発展途上国の損失を増し、ほとんどの場合、合衆国や日本その他のいわゆる先進国の利益になるような方向で進められています。

その他の関連のある現実分析としては、朝鮮半島は未だに飢饉に苦しむ北と、韓国の南に分断されたままです。朝鮮半島の分断状態は、日本人による韓国・朝鮮人のスケープゴート化と同時に、日本人と韓国・朝鮮人との間の断絶という結果を引き続きもたらすでしょう。

世界規模経済の実現は、特殊技術のない移住労働者を引き入れ、それらの国々を国際化しつつも、それぞれの社会における階級差を更に深刻なものにするでしょう。

カナダ、アメリカ、日本の教会に集う私たちは、単にこうした背景の影響を受けるばかりでなく、むしろある面では、私たちそれぞれが属する国家の軍事的、経済的、社会・文化的な価値観と組織機構を自ら形成し、支える存在なのです。もし、私たちが他者のことを気遣おうというのであれば、私たちは、自分たちが一体何者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と見極め、国際的な関係性の中で、また私たち自身の社会の中で、加害者の側ではなく、その犠牲となっている人々の傍らにしっかりと足場を据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CS教案第51号主題

『生きるわたし』(2)

金性済 牧師（教育局長・川崎教会）

Ⅲ ギデオンを酒ぶねから呼び出す神の使者、その名は「CS」！

聖書の本文の十三節から読んでいきますと、酒ぶねにギデオンを訪ねた神の使者とギデオンとの対話が記されています。注意深く読んでみてください。使者はギデオンに、「主はあなたと共におられる」と呼び掛けます(十二節)。それなのにギデオンは、過去に起こった救いの出来事にこだわり、現在に対して否定的な姿勢を崩しません（十三節）。ところが、この対話の様子が十四節から変わっていくのに気付いていますか。十二節では、ギデオンの語り手は、神の使者であり、神の使者は主なる神のことを、「主は……」と三人称で呼び、ギデオンに伝えようとしています。しかし、十四節から、ギデオンの話し相手は主御自身に変貌しているのです。「主は彼の方を向いて言われた」という具合に。その後十五節で、ギデオンは自分の心の中に潜んでいた劣等感をすべて吐き出すように語りますが、ちょうど心の膿が絞り出されたように、そこから、ギデオンは変わります。十六節で主が、「わたしがあなたと共にいる」と宣言される声を、ギデオンが聞いた後、彼はついに、酒ぶねから出てきて、今度はギデオン自身が神の送り出される使者として、歩み始めるのです。

使者がギデオンに語りかける言葉の中で、主なる神が三人称で伝えられている限り、ギデオンの心は動きませんでした。しかし、その忍耐強い対話を通して、伝えられる主なる神が、もはや第三者ではなく、一人称の神として、二人称としてのギデオンを、すなわち我と汝の関係でギデオンの魂を捉えたとき、ギデオンは初めて人生の酒ぶねから解放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在日大韓基督教会のCSは、その聖書の中の神の使者のような働きをするように呼び集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在日大韓基督教会の既成世代と新しい世代の切れてしまい、隔てられてしまった関係をもう一度つないでいく役割は、わたしはCS以外には担えないと思います。いや自分の目に見えざる酒ぶねに縛られているという閉塞状況から青年自身が救い出される道として、自分より更に幼いギデオンを訪ね、忍耐強く幼いギデオンの言い分を聞きながらキリストの福音を語り続ける営みを担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これが在日大韓基督教会が担うべきギデオン運動です。やってみる値打ちがあります。でなければ、在日大韓基督教会に未来はありません。

（了）

韓国家庭料理
有限会社 高馬宇
代表取締役 金元洙
（東京中央教会長老）
本店 〒105-0004 東京都港区新橋3-18-4
TEL 03 (3431) 3921, 03 (3435) 7809
FAX 03 (3435) 0706

愛三産業株式会社
㈱済州カントリークラブ
取締役会長 白昌鎬（東京教会 長老）
取締役社長 白一善（東京教会 執事）
本社 〒130-0022 東京都墨田区江東橋4-6-4
TEL（03）633－7477㈹
FAX（03）631－7703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有限会社 三愛
取締役社長 李鍾善（名古屋教会 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
三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